

# 방글라데시의 시멘트 産業

金 鍾 火

<(株)大宇 化學4部 代理>

“벵골의 나라”라는 뜻을 가진 방글라데시는 남동쪽은 버마와 접하며 남쪽은 벵골만에 면하고 있다. 인구 1억2천5백만명, 약 144,000km<sup>2</sup>의 국토 면적에 벵농사가 주종을 이루는 농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국가이다. 그러나, 1981년 국가경제개발계획의 개시와 더불어 개시된 방글라데시의 근대화 정책은 연평균 10%이상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하며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장속에 시멘트산업은 시멘트산업 자체가 갖는 특수성대로 방글라데시의 기초 소재 산업으로 국가경제에 있어서 기타 산업 즉 섬유, 철강, 화학등과 함께 국가기간산업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1982년 연 100만톤의 수요를

기록한 이후 최근까지 13% 이상의 연평균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다.

필자는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갖는 방글라데시의 시멘트 산업에 대해서 공급적인 측면, 수요 및 가격 형성, 대부분의 수입시멘트로 수요를 충당하고 있는 수입 현황과 이에따른 업계의 신·증설계획 및 향후 전망 등 방글라데시의 시멘트 산업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1. 공급현황

시멘트공장건설의 주요 특성으로 주원료(석회석)의 보유 여부와 시멘트 생산후 운송수단

<표-1> 1995. 9 현재 가동중인 공장 현황

(단위 : 천톤)

공 장 명	위 치	생산능력
CHHATAK CEMENT FACTORY	CHHATAK	267
CHITTAGONG CEMENT CLINKER GRINDING CO	CHITTAGONG	300
AYEENPUR CEMENT FACTORY	CHHATAK	25
MODERN STRUCTUAL SERVICE	DHAKA	30
CONFIDENCE CEMENT TO.	CHITTAGONG	180
계		802

(자료원 : GLOBAL CEMENT REPORT)

의 필요가 중요한 입지 요건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방글라데시에는 양질의 풍부한 석회석 광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인도의 KORMA(코르마) 광산에서 ROPEWAY 방식으로 수입하여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는 CHHATAK CEMENT FACTORY(차탁 시멘트)를 제외한 나머지 현재 가동중인 4곳의 공장은 CLINKER를 수입하여 분쇄하고 있는 공장들이다. 이러한 모든 공장들은 BANGLADESH CHEMICAL INDUSTRIES CORPORATION(BCIC)에 속해 있다. BCIC는 산하소속 공장들에게 생산, 수입과 가격 등을 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 2. 수요 및 가격 현황

1981년 국가 경제 개발 개시와 더불어 연평균 경제 성장을 10%를 기록하는 외형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인당 연간 시멘트 소비량은 약 18.50KG에 머물고 있다.

〈표-2〉에서 알수 있듯이 1995년 현재 수

요를 연 270만톤으로 예상할 때 이미 가동중인 5곳의 공장에서 연간 80만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으나 전체 수요에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공급 부족은 당분간 지속되리라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1996년말 완공 예정인 MONGLA CEMENT를 포함한 2곳의 공장이 가동된다 할지라도 BANGLADESH 전체 생산량은 149만톤에 머물게 되어 여전히 150여만톤 이상의 공급 부족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건물의 신·증축이 시멘트 수요를 부족이고 있고 게다가 방글라데시 기후특성상 1년중 건기가 끝나는 9월경에는 강력한 CYCLONE이 발생되어 전국토의 반이상이 물에 잠기게 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 자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 한 시멘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리라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꾸준한 수요 증가로 인하여 공급부족분에 대해 수입을 연간 약 150만톤에서 180만톤 가량 수입하여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다음의 〈표-3〉은 최근 10년간의 소비자 가격 추

〈표-2〉 방글라데시 국내 시멘트 수요

(단위 : 백만톤)

년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수요	1.9	2.0	2.1	2.3	2.5	2.7	2.9	3.1	3.3	3.5	3.8

(자료원 : BCIC)

〈표-3〉 최근 10년간 시멘트 소비자 가격 추이

(자료원 : BCIC)

연 도	톤당 가격(TAKA)	톤당 가격(USD)
1986	TK 2,600 - 2,700	USD 65 - 68
1987	TK 2,700 - 2,800	USD 68 - 70
1988	TK 2,900 - 3,100	USD 73 - 78
1989	TK 3,200 - 3,300	USD 80 - 83
1990	TK 3,400 - 3,600	USD 85 - 90
1991	TK 4,000 - 4,100	USD 100 - 103
1992	TK 4,100 - 4,200	USD 103 - 105
1993	TK 4,400 - 4,600	USD 110 - 115
1994	TK 4,600 - 4,700	USD 115 - 118
1995.9.30. 현재	TK 5,000 - 5,200	USD 125 - 130

이인데 매년 가격인상율이 매년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방글라데시의 시멘트 소비에 있어 수요가의 대부분이 수입산보다 가격이 약 10%~20% 가량 비싼 국내산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저급시멘트의 수입, 원거리 수송에 따른 수입시멘트의 부분적 옹고화 등으로 수입산 구매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 3. 수입 현황

국내 총수요량의 약 70%를 수입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주요 수입처는 대체로 2GROUP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1972년에 설립된 TRADING CORPORATION OF BANGLADESH(이하 TCB라 함)와 또다른 하나는 일반수입상이다. TCB의 수입물량은 정부의 수입 정책 및 외화 분배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대개 정부 수입 결정량의 50%를 할당받으며 주로 국제 입찰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수입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요르단, 중국산, 인도산 등이 있으나, 최근 동남아 지역의 수요 초과 현상으로 인하여 주로 인도산과 중국산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최근의 수입가격은 12,500톤 선적 기준으로 50KG BAGGED CEMENT 경우 ORIGIN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USD65-72/MT 수준으로, CEMENT CLINKER는 USD55-58/MT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참고로, 주요 수입항은 방글라데시국의 동부 지역에 시멘트를 공급하고 있는 KARNAPHULI 강 입구에 위치한 제일의 항구인 CHITTAGONG과 동서부 지역의 PUSSUR강과 MOGLA NULLA 강의 영향을 받는 MONGLA가 있다. 이중, 여러가지 물류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가진 MONGLA 항이 더 많은 양의 시멘트 수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두항구 다 심한 부두 정체 현상으로 인하여 공급자에게는 이러한 체선가능성으로 인하여 많은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다.

〈표-4〉 연도별 수입실적

(단위: 천톤)

년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예상)
수입량	1,890	1,580	1,600	1,730	1,830	1,940	1,750

(자료원: GLOBAL CEMENT REPORT)

〈표-5〉 신·증설 계획

(단위: 천톤)

공 장 명	위 치	생산능력	비 고
MONGLA CEMENT CO.	KHUNLA	390	건설중
MEGHNA CEMENT	CHITTAGONG	300	건설중
JALALABAD CEMENT	CHHATAK	300	계획중
KODA CEMENT CO.	CHITTAGONG	300	계획중
RED CASTLO CEMENT CO.	CHITTAGONG	300	계획중
SURMA CEMENT CO.	CHHATAK	500	계획중
BANGLA CHINA CEMENT CO.	DHAKA	200	계획중
AHAD CEMENT FACTORY	JESSORE	180	계획중
HYUNDAI		250	계획중(단독투자)
DAEWOO	CHITTAGONG	600	계획중(합작투자)
계		3,320	

(자료원: BCIC)

#### 4. 신·증설 계획

전기한 바와 같이 수요초과 현상으로 인하여 1991년 방글라데시 정부는 시멘트공장 신·증설 허가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국내자본 또는 외국기업체와의 제휴로 <표-5>에서 보는 바와같이 10여개의 공장이 현재 건설 또는 계획중에 있다.

생산능력 각각 39만톤 및 30만톤 규모로 건설중인 MONGLA CEMENT CO. 와 MEGHNA CEMENT가 1996년 완공 예정에 있다. 한국 업체로는 25만톤 생산규모의 단독투자를 계획 중인 현대와 방글라데시 최대의 생산 규모인 연산 60만톤 규모의 CLINKER 분쇄공장 설립을 계획중인 (주)대우가 있다.

#### 5. 향후 전망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을 발판으로 이미 섬유산업의 세계 생산 기지가 된 방글라데시는 시멘트산업에서도 정부의 시멘트 공장 신·증설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등 외국 자본을 끌

어들이기 위해 세제 혜택등 특혜를 주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은 비롯하여 유수의 주요 시멘트 업체가 관심을 갖고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방글라데시 진출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외국 기업은 부족한 석회석 자원으로 인하여 CHITTAGONG PORT 와 MONGLA PORT 주변 지역에 클링커분쇄 공장 위주로 계획중에 있으나, 클링커의 경우 전망을 수입산으로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클링커 공급원 확보와 이에따른 수송비 부담 등으로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한편, 방글라데시 국영기업체, 국내 재벌 기업 및 일부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FLOATING CEMENT TERMINAL을 이용한 수입 판매 방식으로 방글라데시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정부의 강력한 경제 개발 정책과 시멘트 수요가의 잠재 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동남아 각국의 시멘트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공급 과잉을 대비하여 향후 잠재 시장으로서 세계 주요 시멘트 업체에서 주요한 시멘트 시장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림-1> CHITTAGONG 시멘트 크링카 그리인딩 공장전경

